산업기술정책 대개혁 “가능할까?”

산자부, 산업기술개발 중기투자계획 마련 … 기술인력 수급대책도

산업자원부가 고생산성, 고기술, 고부가가치화 등 3고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기술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하고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4월30일 기술표준원 대회의실에서 신국환 장관 주재로 임내규 차관, 최홍건 산업기술대 총장, 이희범 생산성본부 회장, 조환익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유영상 표준협회 부회장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 10대 정책과제”를 놓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기술 유관 기관장이 모여 산업기술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산자부는 토론회에서 현행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통한 산업기술예산 배정방식 때문에 정책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어렵다고 판단, 앞으로는 업종별, 기능별, 지역별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토대로 “산업기술개발 중기투자계획안”을 마련해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또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에 따른 산업계 인력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인력 수급대책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수급대책에는 우수 공대의 해외산업 연수프로그램과 석사·박사과정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확대, 병역특례 개선방안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기업현장 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공대 교과과정 개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관기관 참석자(20개)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기술지원기관(3개)	한국생산성본부	회 장	이 희 범
	한국기술거래소	사 장	오 강 현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조 환 익
기술개발기관(5개)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원 장	노 영 욱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원 장	김 춘 호
	생산기술연구원	원 장	주 덕 영
	요업기술원	원 장	정 수 철
	디자인진흥원	원 장	정 경 원
기술시험기관(9개)	한국표준협회	부회장	유 영 상
	산업기술시험원	원 장	강 윤 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원 장	박 계 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원 장	설 창 연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원 장	이 감 열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원 장	김 호 철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원 장	홍 원 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 장	강 호 선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원 장	김 광 식
기술교육기관(2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 장	최 홍 건
	경기공업대	학 장	장 재 철
기술평가기관(1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 장	주 문 영

아울러 후발 개발도상국의 추격이 심한 자동차, 기계, 조선, 반도체·전자, 철강(금속), 화학, 섬유 등 7대 주력기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업종별 기술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유망기술 이전을 촉진키 위해서는 7월부터 국·공립대학에 “기술이전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술개발 평가방법을 기존의 “성공-실패”에서 “성실-불성실 수행”으로 바

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센터를 연계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테크노파크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2단계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품질경영혁신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한편 국내 규격을 2003년까지 국제수준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산업기술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정례회의 개최도 검토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02>